

CCTV로 사고 감지... 외관만 스마트한 인천 U-City 관제센터



인천경제자유구역 전경. 최첨단 스마트 시티를 지향하며 U-City 관제센터를 설치했으나 아직 협력 및 실행체계가 구축되지 못하면서 시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2 서울과 인천 송도의 '시도'



서울도시고속도로 교통정보센터 내부 모습. 도로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아직 예측 단계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다.

스마트 시티를 표방한 인천경제자유구역(Incheon Free Economic Zone, IFEZ)은 외관을 화려했다. 다양한 고층 빌딩들이 눈을 사로잡고, 그 가운데를 수놓는 녹지와 물길, 사방을 연결해주는 차도와 보도 등 미래도시상을 상당부분 구현해냈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정도다.

국내 스마트 시티의 선두주자로 불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송도지구(목표인구 25만명), 영종지구(17만명), 청라지구(9만명) 등으로 나뉘어 있다.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 등 세계 각국의 비즈니스 허브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시아 경제 중심 실현을 위한 핵심지역인 이곳은 2020년까지 유비쿼터스 도시(Ubiquitous City, U-City) 사업에 3541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최첨단 IT 기술을 주저하지, 비즈니스 공간, 공공기관, 산업단지 등에 접목시켜 정보화 도시로 부상하기 위해 도시통합운영센터 설립, 광케이블 설치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도시를 움직이는 내부 역시 스마트하게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현재 드러난 관제시스템은 CCTV 관독을 통한 사고 감지 등 기존의 그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U-City 관제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모두 계약직 직원으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했으며, 경찰이나 소방서와 유기적으로 연계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가장 규모가 작은 청라지구에 설치된 CCTV 274대와 센서 800여 개에서 쏟아내는 정보들을 4명의 계약직 직원들이 분석해 예

측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단순히 시간·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경찰이나 소방서에 전해주는 기능에 머물고 있다. 광케이블, CCTV, 센서, 서버 등 600여 가지의 시설을 설치하는데 670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시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제공하지 못하는 신세라는 것이다.

7년 전인 2007년 1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들어선 서울도시고속도로 교통정보센터는 경찰, 시설공과와 연계체계를 만들고 800여 대의 CCTV에서 나오는 정보를 250여 개의 전광판은 물론 어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운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운전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U-City 관제센터보다 우수하다고 하겠지만, 분석을 통해 예측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도시고속도로라는 한정된 공간에서만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뚜렷하다고 할 수 있다.

CCTV나 센서 등에서 수집되는 방대한 양의 '정보'는 범죄나 재난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사생활 침해, 정보 유출이나 누수 우려 등의 부정적인 측면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관제·교통

근무 직원들 모두 계약직... 책임 소재 불분명 경찰 등과 유기적 연계 안돼 서비스 제공 미흡 서울시 '비콘' 통해 전통시장 살리기 등 눈길 과장급 이상 결재 공문서 공개 행정 투명해져

보센터의 운영 책임 소재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높아지고 있다.

공공기관 가운데 국내에서 가장 선도적인 서울시는 전자공문서 공개, 핸드폰 투표(Mobile Voting), 모바일 앱을 통한 시정 정보 제공, 비콘(Beacon)을 통한 전통시장 살리기 등의 스마트 시티 정책을 펴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핸드폰 투표 제도는 정부부처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선진적인 기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공정보를 최대한 공개해 시민들이 시정을 파악하도록 유도하고, 정책 수립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스마트 기기와 기술을 통해 모든 빅데이터(Big Data)를 정책 결정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완벽한 체계는 아니지만 지향점이 뚜렷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우선 지난 3월부터 서울시 과장급 이상 공직자가 결재한 공문서는 모두 공개되고 있으며, 이는 모든 전자문서의 82%에 해당한다. 공공기관의 행정절차가 투명해지고, 생활·교통·공공정보 등의 공개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가 늘어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정보를 어떻게

시각화해 시민이 친밀하게 접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다.

Mobile Voting도 향후 여러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다. 현재는 "서울 등 축제에서 가장 좋았던 등은?", "광화문 장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코너는?" 등의 '가벼운' 질문을 앱을 다운 받은 1만여명의 시민에게 던져 상호 소통하고 있다. 전문가 11명이 전략위원회를 구성해 문항을 만들어 답변을 분석하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특히 서울시는 특정 장소에 설치하고 사용자의 모바일과 커뮤니케이션해 사용자의 위치를 인식한 뒤 그에 맞춰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콘(Beacon)을 통해 전통시장 살리기, 구인·구직 및 건강·트래킹 정보 제공 등에 나설 예정에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내년 초 서울시내 5곳의 전통시장 곳곳에 비콘을 설치한 뒤 구역 내 점포를 지나칠 때 할인, 쿠폰 등의 정보가 소비자들의 핸드폰에 자동으로 발송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시범실시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빅데이터를 버스노선이나 주요 공공시설 입지 결정 등에 사용하는 등 서울시의 이러한 '시도'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 서울열 창업센터를 통해 시민들의 수요가 있는 앱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맡을 큐레이터를 꾸준히 양성하고 있다는 점도 다른 도시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KOM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트라이슈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시공과정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2.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합코팅 시공
4. 옥상 시공 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 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꿔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형 밸런스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는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저탄소 녹색(Green)환경 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IPALG 광주전남대리점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